

연중 제33주일  
평신도의 날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기도서 478 편

제 1 독서 : 다 니 12, 1-3  
제 2 독서 : 히 브 10, 11-14·18  
복 음 : 마 르 13, 24-32

편집실 : 전주시서노동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 강론



## 平信徒, 우리는 누구인가?

양 상 렬

평신도란 현세적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업을 수행하는 신자 즉 성직자와 수도자를 제외한 일반신자를 말합니다.

평신도는 우선 복음을 선포하고 인간을 성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영적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평신도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질서를 그리스도교화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신도는 세속생활 속에서 복음정신과 그리스도교 사랑으로 스스로 예수를 증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정신에 터잡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성직자 수도자의 본래의 사명을 도울고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직무와 관계없이 평신도에게 직접적으로, 고유한 책임으로 부과되었다는 의미에서 평신도의 고유사명인 것이며 또 모든 평신도 한사람 한사람이 저마다 받은 은총(재능)에 알맞게 나름대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고 누구도 어느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절대적 의무요 보편적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부님이나 회장이 시키는 일을 지시대로 거들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나 스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장이나 총무에게 미루었던 지나간 일들은 사실은 나 자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은 회장이나 단장이 아닌 바로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미사에만 살짝 참석하였다가 걸음도 바쁘게 돌아가 자기의 사생활에 몰두하는 평신도, 물론 남을 해치지거나 괴롭히지 않는 선량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나 그 자신을 위해서나 아무데도 쓸모없는 지체」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모르고 자기(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이 아닌 까닭이며 또한 천국은 이웃들과 떨어져 혼자서만 들어갈 수 없는 까닭입니다.

평신도 여러분!

성직자나 수도자의 활동에 적절할 수 없거나 아예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야말로 우리 고유의 직무분야이며 이러한 분야는 날로 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구석 구석이 평신도들의 사랑과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나 스스로 내 힘껏 뛰어들겠습니다.

(전주 교구 평협 회장)



## 평신도의 날, 무엇하는 날인가?

평신도에 대한 우스갯 소리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평신자는 제대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설교대 앞에서는 앉아서 듣고, 손은 항상 지갑에 넣고 있는 신자이다.」 평신도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아주 별볼일 없을 때의 이야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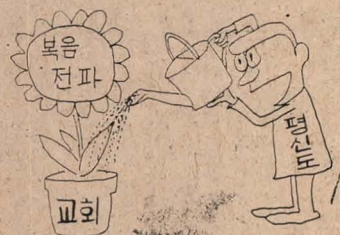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빠른 속도로 달라졌다. 그 중에 하나가 세속화 현상이다. 이에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했다. 그 가운데에 하나가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고유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평신도는 세속 안에 살면서 결혼생활이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격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은 많은 평신도들이 그러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사도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그러한 일은 몇몇 열심한 신도들이나 사제와 수도자들의 고유한 임무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자포자기이다. 자기비하이다. 주체의식이 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않을 것이다. 평신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가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평신도의 날을 지내는 가장 큰 의미이다.

아울러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를 잊지 않아야 한다.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일치를 이루는 일이다.

평신도의 날을 맞아, 스스로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사명을 확인하며 몸과 마음으로 투신하자.

## 숲 정 이 산책



평신도의 의무와 책임



# 새로운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납니다.」(고린 후 5, 17)

나는 20년 전 E대학 시절에 미국인 저명한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내 나름대로 종교가 필요했고 또 학칙상 '채플'을 중요시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생활을 달리하다가 보니 내 신앙생활은 차츰 냉담해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위대한 위선자(?)로 보여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앙의 갈등 속에 상당히 헤매다가 나는 불교에 귀의하고 말았습니다. 불교용어로 인연이 닿아 좋은 남편도 만나게 되어 지금까지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집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가정부가 들어와서 새벽이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곤 하였습니다. 불교 집안에 이것이 무슨 꼴이냐고 나는 몹시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던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밝고 강한 빛을 발산하며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단 꿈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잊으려 했으나 그러던 그럴수록 그분은 내게 너무나도 위엄스럽게 군림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꿈으로만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벅했습니다.

그후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별 감각없이 평범하게 바라보이던 것이 무엇인가 뜻이 담겨져 있고, 아름다움이 들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게만 보였습니다. 세상은 환희의 세계, 경이로운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다시 깨닫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나는 나름대로 헤매다가 「베스라 성서」를 대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가 야곱의 야뻑강 씨름의 대목이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배반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까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그렇게까지 대해 주시고 찾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때

# 바 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양심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온 천하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뇌성번개가 요란해도 가슴을 조이지 않는 마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화염의 태양이 내리쬐는 불벌 아래 서서도 옛가락 같이 녹지 않는 의지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인적이 끊어진 산간에서도 고독을 썰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맹수를 위한 침묵입니까?  
포수를 위한 발언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심산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박 미카엘라 수녀

깊은 고독을 체험했습니다. 당신의 '빈 무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글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또 아픔도 주었습니다. 고독과 눈물 그리고 아픔, 이에 대한 나의 감각을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40평생을 헛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일생을 통해서 인생순례의 관전으로 삼고 싶습니다. 내게 접촉되어지는 그분의 뜻을 보다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열심히 성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향해서 '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이뤄주소서”라고만 되겠습니다. 참으로 당신께 감사합니다.

1982년 10월 19일

민 혜 자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 광**

전화 ⑥ 6 6 6 6 ~ 8

제주도 · 설악산 · 한려수도

\* 유치원용, 교재·교구

**중앙 교육 사**

전화 (72) 1 8 9 1 번

이 승 호(다마스)

위치:전동 터미널 앞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하**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 민 약 국**

4-0009 · 3-3338

약사 김 병 의(마렐로)

금 · 은 · 보석 · 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영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 □ 금마 본당 성전 신축 모금

금마 본당은 성전 신축을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가난한 농촌 본당으로는 힘에 겨운 일이지만 주님의 성전을 건립하려는 신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진 성구(5백만원), 채 남석·강 순례(3백만원), 민 두희(2백만원), 배 순례·남 정순(금반지) 등 이외에도 신자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성전 건립에 협력하고 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요, 세계 대대로 주님께 찬미와 예배를 드리는 기도의 집이다. 내집 짓듯 주님의 성전을 건립하여 한국 선교 200주년을 앞둔 우리 신앙에 튼튼한 기초를 놓도록 하자.

## □ 제6차 1982년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한 해의 거둠에 감사하며, 정성들여 가꾼 농산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결실의 뜻을 헤아리며, 농민들의 어려움과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수감사 및 농민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농민들의 잔치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1부 추수 감사 미사: 박 주교님과 사제단 공동 집전.

제 2부 농민대회: 농민문제 해결 결의

제 3부 농민 잔치: 농민들의 기쁨과 환을 풀기 위한 잔치 마당

때: 82년 11월 22일 오전 11시~오후 4시, 곳: 덕진 천주교회.

문의할 곳: 농민회 ☎5098, 덕진 천주교회 ☎2182

주최: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북 연합회.

## □ 다미안 사회 복지회

다미안 사회 복지회는 불우한 청소년·소녀와 무의 무탁하신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가톨릭 단체입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기술교육: 남-정비, R/TV, 남자간호보조, 목공예, 양복(재단).

여-양재, 미용, 간호보조.

일반교육: 점성 고시 준비.

대 상: 가난한 사람, 청소년·소녀(16세-20세)

양노원: 무의 무탁하신 노인,

환 자: 중병(암) 환자

대상-아무 보호자가 없는 중환자 ※ 남·여 환자 기숙사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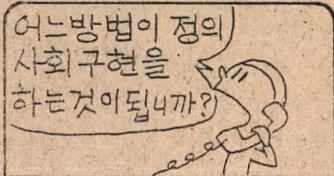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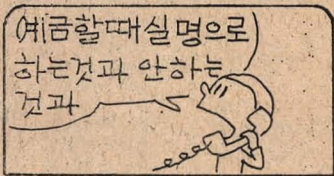
\*연락처: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화 ☎5098 천주교 전주 교구청 사무국

다미안 사회 복지회 경기도 안양시 우제구 사서함 36호, 전화 3554

## □ 신태인 성당에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꾸리아 창설

지난 11월 7일 신태인 성당은 본당 신부님을 비롯하여 사도회 임원과 레지오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6개 브레시디움으로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꾸리아를 창설하였다. 초대 단장에 김 영배(베드로), 부단장에 박 길옥(테레사), 서기에 최 석원(베드로), 회계에 최 병옥(바울라)을 선출하였다. 성 민호(야고보) 본당신부님께서서는 81년도에 1개에 불과하였던 브레시디움을 1년만에 6개 브레시디움으로 만든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1주년 기념식 때에는 12개 브레시디움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레지오 기도문의 정신에 의거 자기 힘으로 할 생각을 버리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이웃 안에서 늘 주님을 뵈옵고 섬기는 자세로 할 것을 호소하였다.

## 요심이 (484) 김병오



### 여사원 모집

자격: 만 18세 이상.  
사본고, 무잇기 우대함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이력서 1통  
기간: 11월 연락처: ☎9340  
※ 기숙사 완비  
동양 섬유 공업사

주단·포묵(훈수·획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핑크)카텐저 도매상

### 서울주단

전화 ☎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실내장식·조경·가옥수리  
건축일절·페인트  
**화석 인테리어**  
전화 ④ 0265  
이 중화(바오로)  
김 명석(스테파노)

□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 신집**  
숙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  
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  
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복은행 앞  
전화 ☎ 6603  
한 철 재(비오)

**컴퓨터를 배우시다!**  
프로그래밍·키보드 과정  
대상: 고졸이상의 남·녀  
개강: 매월 10일  
**전주 컴퓨터 학원**  
문의전화 ☎ 2805번  
전북은행본점취아리랑제과옆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2지구 율리야 총회 : 오늘 오후 2시, 장소-오룡동 본당
2. 4지구 중·고등학생 성가 경연대회 : 오늘 오후 2시, 장소-중앙 본당
3. 전주교구 수녀 연합회 : 15일(월) 오후 2시~4시30분, 장사-박 정일 주교님
4. 3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월례회 : 20일 오후 2시, 삼례 본당
5. 82년 추수감사 및 농민대회 : 22일 11시~오후 4시, 장소-덕진 본당
6. 전국 BF 모임 : 20일(토) 오후 5시-21일, 대상-성서에 관심있는 젊은분, 장소-센타
7. 중·고 지도자 모임 : 정기총회, 일시-21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타
8. 축! 영명 : 15일-성 알베르토 오 기순 신부님

#### (중앙)

전화 ⑤1711~3

주임	신부	문정호	현호
수석	보좌	한기림	이훈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 ※ 성경읽기 : 허브리서 전체
1. 성도회 : 21일
  2. 부활반 교리 개강 : 오늘 9시30분 2층 교리실 첫모임
  3. 9월 복자반 사진 찾아가세요(사무실)
  4. 오후 2시 : 꾸리아 월례회
  5. 성전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단은 다음주 발표, 신축헌금 누계 : 122,83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11,800원 교무금 : 707,500원  
감사헌금 : 김토사리아 20,000원

####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2. 애령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각분과 및 제단체에서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세요
  4. 나의 이웃 교류를 알아봅시다 : 21일까지 본당에서 준비한 양식에 의해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5. 각 단체의 회원명단 제출 : L.M, 성도회, 애령회, 자모회, 성가대, 신우회
  6. 미사시간 엄수 : 각 미사참례에 늦지 않도록 합시다
  7. 예비자 교리안내 : 일남-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 7시,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아파트교리-매주(목) 오전 10시
  8. 감사합니다 : 성당 의자에 방석 제공하신 분과 제대 용 족대 봉헌하신 이경화씨,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9. 축! 결혼 : 오늘 12시, 신랑-최종문(아오스당), 신부-한복순
  10. 차주의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은경, 독서-①서용문 ②박민숙  
공식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문명식 ②최명자  
저녁미사 : 해설-이종관, 독서-①유철희 ②이미경  
공식미사 : 기도 봉헌-황시연 · 서성남
- 지난주 봉헌금 : 388,097원 교무금 : 254,000원

####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금년 가을 판공성사 : 해당 방문 일정인 주간예 성사 보시기 바람, 가정방문서 성사표 드립니다
  2. 금주 덕진동 전지역 : 구역장 · 반장님 함께 수고합니다. 차주-송천동 전지역
  3. 집주소 ·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은 사무실에 연락바람
  4. 미사시간 안내 : 평일 오전-월요일 · 목요일 오전6시 평일 화~토 저녁 7시 · 어머니미사 금 오전 10시
  5. 제단체장 모임때 드린 단체보고서 2부씩 제출 바람
  6. 학생들은 성사표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7. 주일학교 : 가정의 귀여움이 교리반으로 일요일 교리-2시, 미사-3시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12,540원

####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유아세례 : 오늘 오후 4시, 3시까지 나와 준비하세요
2. 학생회 성가경연대회 : 오늘 오후 2시. 많이 응원바람
3. 가정방문 : 16일(화)-매평동 5·6반, 18일(목)-매평동 7·8반, 19일(금)-진북동 1·2반, 23일(화)-진북동 3·4반, 25일(목)-진북동 5반
4.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각 신심단체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소속분과

에 제출하시고 각분과에서는 28일 까지 사도회에 제출 바람(일자 엄수 바람)

6. 금주전례 : 해설-김제식, 독서-①유기순 ②박상기  
차주전례 : 해설-안경례, 독서-①정동민 ②천건
- 지난주 봉헌금 : 467,250원

####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황인규

1. 반장님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모임 : 오늘 오후 2시 회의실, 참석 바랍니다
  3. 할머니 모임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가정방문 : 7반-16일, 6반-17일, 5반-19일
  5. 본당 정문 수리 우리 모두 다같이 협력합시다
  6. 제대양 화분 2개 기증 : 박미카엘씨 꽃대(2만원) 봉헌 : 이혜숙(테레사) 감사드립니다
  7. 전례담당 : 독서-①박형식 ②함문권
- 지난주 봉헌금 : 248,625원 교무금 : 160,000원

#### (숲정이)

전화 ⑥7366  
수·유 ③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걸

1.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2. 예비자교리 :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30분
  3. 견진성사 대상자 :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금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고재권 · 김중안  
기도-강원모 · 김정숙
  5.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이원일 · 노재두  
기도-이기호 · 장삼례
  6. 미사안내 : 금주-권은숙 · 최윤희 · 김귀선 · 김숙현  
차주-황화순 · 유봉태 · 오귀례 · 오옥동 · 유희자 · 반경자
- 지난주 봉헌금 : 374,120원

#### (전동)

신부 ⑥6208  
사무 ③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 장우회 : 공식미사 후
  3. 성화회 · 교미씨움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견진 : 28일 교리-22일~27일 저녁미사후,
  5. 가정방문 일정 : 16일~18일-풍남동, 19-중앙동, 23일~26일-전동 · 서교동
  6. 성령세미나 : 14일~21일, 저녁 7시~9시, 강당
  7. 성서 강의 : 양현홍 선생님 지도, 공식미사 후 강당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안득수 ②이영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영철 ②변해식
- 지난주 봉헌금 : 552,835원

#### (파티마)

신부 ⑥0915  
수녀 ②4804

주임	신부	김영빌
사도	회장	황희상

1.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83년도 예산문제로 82년도 책정된 것을 참고해서 셋째주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우이웃돕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교의(헌옷)를 수집코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바람
  3. 책을 보냅니다 : 해안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과 배를 타는 해군들을 위해서 서적을 모집합니다. 적어도 한집에 1권씩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82년도 저물어갑니다. 봉헌금이 정리되는지 살펴봅시다
  5. 이말은 위험성할입니다. 선영들에게 효심을 베풀 미사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레지오에 가입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 256,065원 교무금 : 293,000원